

# PHOTO ESSAY

## 사진산책



● 북악산 전망

### 중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중간. 일상과 섬의 중간 같은 사진.  
특정 주제나 내용에 치우치지 않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진

그라데이션(gradation)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시야에 들어오는 대상물의 농도가 미세하게 변해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자연현상에 착안해 빛과 색의 밝기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예술적 표현 기법이 등장했다. 이른 아침 도시의 산에 올라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면 고층 빌딩과 산과 언덕이 어우러진 그라데이션 장면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미세한 빛과 색의 변화를 포착한 사진은 예전 선비들이 즐기던 수묵화에 견줄 만하다. 물로 검은 먹의 농도를 조절해 그리는 수묵화는 선비의 고결한 정신세계와 예술적 경지를 상징하기도 한다. 흰색에서 검은색에 이르는 중간 영역에 펼쳐진 수많은 회색 단계를 미세하게 표현해 다양한 감성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불투명하고 둔탁한 모습과 투명하고 선명한 장면이 겹쳐지는 한 장의 사진은 마치 복잡다단한 인간세계를 보여주는 듯하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모습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 새롭게 의미를 부여받고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하는 것이다.

**이호준 Lee, Ho-Joon** | 언론학박사·포토아티스트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했다.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에서 2회 수상하고, 다섯 차례의 개인전과 여섯 번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포토에세이 <걸으면 보이는>을 출간했으며, 여러 월간지와 주간신문에 사진이야기를 연재했다. 인터뷰 방송에 출연해 사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고,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초청으로 사진 강연을 한다.



● 새만금 간척지